



주 제:	“기도”	“연중 제 17 주일 (다해)”	2007년 7월 29일
복음 묵상:	루카 11,1-13	창세 18,20-32	골로 2,12-14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듯이, 특정한 기도를 정해진 양과 순서대로 바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별이는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청원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창세 20-32 참조), 기도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인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유혹에서 보호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뒷부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청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기도 지향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향들이 우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자신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근본정신입니다. (서울 김영국 신부님 강론중에서)

### 공지사항

- 8 월달 본당에서 있게 될 **북가주 성령대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되도록 **목주의 9 일 기도를 6월 25일 부터 8월 17일 까지 54일간** 바칩니다. 여러분의 중재기도로서 참석하시는 많은분들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 한번씩은 꼭 바쳐 주십시오.
- 북가주 성령대회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권유해 주시고 모든 성령 가족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복음 [루가 10,25-37]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거룩한 독서\_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는 명사 'lectio(독서)'와 형용사 'divina(신적神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divina'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 '거룩한 독서' 또는 '성독(聖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관상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 거룩한 독서 - 렉시오 디비나

#### 기도 방법

##### ▶ Lectio : 독서

먼저 성서 말씀을 찬찬히 정독합니다.

##### ▶ Meditatio :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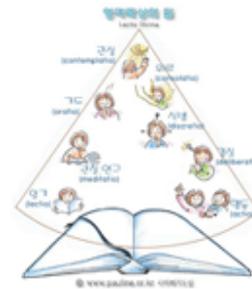
그 말씀의 의미 등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 ▶ Oratio :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칩니다.

##### ▶ Contemplatio : 관상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크게보기

- 성서에 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면 성서를 읽거나 성서에 대한 주석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렉시오 디비나"는 이런 식의 독서와는 달리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영적 실습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성서를 "읽는다"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는 성사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성서는 책에 기록된 "글자"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2 세기의 귀고 2 세 아빠스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성경 대목을 읽을 때 (lectio),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으면서 소화시키듯이 그것을 계속 되씹니다(meditatio).

그 성서 말씀을 계속 되뇌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완전히 스며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oratio)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관상(contemplatio)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네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둘째 단계 또는 셋째 단계까지만 이르러도 훌륭합니다. 미사 복음 중에 마음에 와 닿은 어느 구절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겨 집안일을 하면서 출퇴근길에 정성스럽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치 "화살기도"처럼 우러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렉시오 디비나"는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방식에 얽매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내면화하고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주, 아니 매일 작은 말씀하나라도 씹고 또 씹어 그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 훌륭한 묵상 방법이라 실었습니다.